

1. 개념학습

1. 문학의 개념과 갈래 [이근삼, '국물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학의 속성과 유기성 : 문학은 내용과 표현, 그리고 형식이 유기적(밀접하게 관계를 맺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 즉, 문학의 내용이 각 문학의 갈래에 맞는 형식에 맞추어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2. 문학을 4가지로 나누는 4분법에 의한 문학의 갈래가 설명되어 있다. 다음 용어 주의하여 학습한다.

- 방백 : 상대 배우는 못 듣는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대사
- 교술 : 수필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국물 있습니다'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

- 지문 후반부의 '상식'의 의미

: 주인공인 상범은 **일반적인 상식**(일반적으로 옳은 삶, 양심에 따른 삶, 착한 삶.)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면서 손해를 보며 살게 되자 **새로운 상식**(부정해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삶)을 갖기로 한다.

4. '국물 있습니다'의 출제 지문 상황

- 평범한 회사원인 상범이 형인 상학(이기적인 인물)에게 결혼 상대자를 빼앗기고 아버지 환갑잔치의 비용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상범은 여지껏 선량한 삶(기존의 상식에 맞는 삶)을 살았지만 이기적인 삶(새로운 상식)을 살기로 한다.

5. '국물 있습니다'의 지문 해석 포인트

- 1) 상범은 결혼 상대자를 형에게 빼앗겼다.
- 2) 아버지의 환갑 잔치 비용도 자신이 주선, 떠안게 되었다.
- 3) 선량하게 사는 기존의 상식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상식에 맞춰 살기로 한다.

6. P10 2번 문제에서 '서사적'의 의미

- 서사문학은 소설문학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설은 서술자가 정해져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등...)이렇게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성을 이 문제에서는 '서사적 특성'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국물있습니다'에서는 극문학이지만(극문학에는 서술자가 일반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특이하게 주인공인 상범이 서술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지문 후반부)

국물 있습니다

이근삼

▣ 줄거리

소심하고 어수룩한 김상범은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그에게는 늘 실패와 손해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사장에게 신임을 얻어 임시 사원에서 정규사원이 됩니다. 김상범은 박용자와 결혼을 결심했으나, 형과 박용자가 결혼하게 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 출세의 방법에 눈을 뜬 상범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변합니다.

그는 아파트 관리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관리인의 돈 5만 원을 아버지 환갑잔치에 써 버립니다. 또 회사의 상사인 경리과장이 공금을 유용한다는 비리를 사장에게 고자질하여 그를 제거하고 자신이 경리과장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캄패인 '탱크'에게 여자 문제로 협박을 당하던 중, '탱크'가 회사의 월급날 경리과를 털기로 한 것을 알고 뒤쫓아 가 사냥용 총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이 일로 사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고 서울 시민의 영웅이 되며 상무로 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장의 며느리이자, 비서요, 미망인인 성아미가 박 전무와 간통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그녀와 결혼을 하고 사장의 아들 뒤통으로 남겨둔 상속 재산까지 가로채게 됩니다. 그런데 성아미는 신혼여행 때 비행기에서 박 전무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고백하고, 다음 날 상범은 성아미가 임신한 아이가 박 전무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신혼 여행지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갑니다.

▣ 등장인물

상범의 무모한 행동, 속물근성을 가진 사장의 과장된 행동, 배영민의 비굴한 태도, 아미의 이중적인 태도, 상학, 상출 형제의 소시민적 근성 등 당대의 빛나고 왜곡된 인물 순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냄으로써 작가의 날카로운 현실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 * 상범 : 본래 소심하고 어수룩한 젊은이였지만, 출세의 방법에 눈을 뜨게 되자, 냉혈하고 야비한 인간으로 변모.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한 세태를 대변.
- * 상학상출 : 이상을 좌절시키는 현실 앞에서 굴복해 버리는 무기력한 인물. 당대 현실에 청년들이 느꼈을 좌절감을 드러냄. 상학은 동생의 여자를 가로채고, 부모 환갑잔치가 자신의 결혼식에 방해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짐.
- * 영민 : 상범의 상사였으나 이후 상범의 모함에 의해 시골 근무지로 좌천되었고 이제는 상범에게 아부하여 서울로 돌아가려 함. 권력 앞에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
- * 사장 : 속물적 근성을 지닌 인물로 상범에게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업종을 선물.
- * 아미 : 사장의 며느리로 전무와 관계를 가짐. 상범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 끝에 그와 결혼하게 됨. 겉으로는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정적 인물

▣ 핵심정리

- * 시대 : 1960년대
- * 갈래 : 서사극, 사회 풍자극, 소극
- * 특징 : 풍자적 세태 비판적인 성격을 지님
- * 주제 : 현대 사회의 의기주의와 출세지향주의. 한 평범한 인간이 산업화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야비하고 냉혹한 인간으로 변모하는 출세의 과정을 고발.

▣ 참고 1 서사극의 특징 - 주인공 상범의 역할

상범이 극중 인물과 해설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관객이 극에 몰입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관객에게 소외 효과를 줌으로써 사건 진행에 일정한 거리를 갖도록 하여(감정 이입의 차단)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 참고 2 서사극의 특징 - 무대의 비사실성

이작품의 무대는 우측엔 상범의 아파트, 좌측엔 회사 사무실, 전면은 길거리, 복도, 공원 등으로 나누어 동시 무대를 꾸며 상징적인 무대로 처리하는 장면이 많은데 이는 의도적으로 사실주의 연극의 시간 개념을 무너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 3 제목 '국물 있습니다'의 반어적 표현

당시 유행하던 국물도 없다는 말을 반어적으로 활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물'로 표상되는 물질적 욕망 충족을 위해 달려가는 비정상적인 인간상을 보여 주고 있다.

■ 참고 4 '상식'의 의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피해자로 살아가던 상범이 부정한 세대에 적응하기 위해 변용한 개념으로 비록 부조리하고 부당한 방법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 작가연구

이근삼 (1929 ~) : 1929년 평안남도 평양 출생. 1952년 동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 1966년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58년 영문희곡 〈끝없는 실마리〉를 미국 캐롤라이나 극단에서 첫 공연한 후, 1959년 사상계에 단막 희극 〈원고지〉를 발표함으로써 국내문단에 데뷔하였다. 극작 활동 이외에도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서 영문학과 신문방송학을 강의했으며, 극단 민중극장의 대표, 과천시세계공연예술제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예술원상, 1994년 국민훈장모란장과 육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한바 있다. 저서로는 창작희곡집 〈제18공화국〉, 〈유랑극단〉,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 〈국물 있습니다〉, 〈이성계의 부동산〉, 〈어떤 노배우의 마지막연기〉 등이 있으며, 극이론서 〈근대영미희곡개론〉, 〈구미연극산고〉, 〈연극의 정론〉, 〈서양연극사〉, 〈연극개론〉 등이 있다.

대표 작품으로 〈원고지〉,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 〈국물 있습니다〉, 〈아벨만의 재판〉, 〈막차탄 동기동창〉, 〈이성계의 부동산〉 등이 있다.

■ 해설 1

주인공(김상범)의 세속적인 출세기를 통해서 오늘의 사회적 세대와 구조적 모순을 익살스럽고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제목인 〈국물 있습니다〉는 1950~60년대에 유행하던 비어로서 '국물도 없다'라는 말의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국물'은 약간의 이득을 뜻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의 충족을 위해 달리면 무언가 이익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소심하고 어수룩하기까지 한 주인공이 비정상적인 출세의 방법-그가 새 상식이라고 말하는-에 눈을 뜨자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취해야 한다는 것, 양심적인 갈등은 백해무익하다는 것 등을 생활신조로 삼는다. 작품은 주인공이 출세와 성공의 극치를 보이는 가운데 그를 둘러싼 주위의 등장인물들도 당대의 모순된 행동양식을 하나하나 비유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보완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갖는 묘미는 당대의 출세주의와 배금주의 풍조를 아이러니컬하게 시사해 준다는 데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950년대까지의 우리 연극계는 무대장치에서부터 배우들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것을 묘사하는 방법에 치중하고 있었다. 작가 이근삼은 이러한 상투적이고 고정된 시간 공간 개념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보여 왔다. 〈국물 있습니다〉에서 그러한 작가의 노력은 일상적인 말의 감각이나 말투를 되도록이면 살려내면서 생생한 체험의 언어, 현실적인 감각이 충만한 언어, 그러면서도 극적인 행동이나 분위기가 넘치는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기에 힘을 경주하였다.

2. 맥락을 고려한 작품 감상 [김유정, '동백꽃'] 주요 내용

1. 문학 작품과 맥락(사물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의 관계
⇒ 문학 작품은 그 시대적,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올바른 감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2. P13 2번 문제에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
 - 방언 : 사투리
 - 육두문자 : 비속어, 욕, 음담패설 등의 저속한 말
3. '동백꽃'의 출제 지문 상황
 - 순박한 소작농(땅이 없어 땅을 지주로부터 빌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아들인 '나'는 마름(지주로부터 위임받은 농지 관리인)의 딸 점순이 자신을 좋아하지만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점순은 싸움을 못 하는 나의 집 닭과 싸움을 잘 하는 자신의 집 닭을 싸움 붙여 나의 심기를 건드린다. (자신의 집 닭이 싸움을 못 해, 자신의 집 닭을 상하게 하므로)
4. '동백꽃'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
 - 1) **해학적** (웃음, 우머러스한 성격)
 - ⇒ 이 작품에서 해학을 이루는 요소
 - ㄱ) 비속어 사용 (비속어를 사용하면 웃음이 유발된다. 예-김구라)
 - ㄴ) 해학적 상황 :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닭싸움을 붙이는 점순
 - ㄷ) 우둔한 서술자 : '나'는 점순의 의도를 모른다.
 - ㄹ) 희화화 : 우스꽝스러운 인물의 행동이나 말
 - 2) **닭싸움, 동백꽃의 의미**
 - 닭싸움 : 점순이의 사랑, 갈등 해소의 매개체(결국 닭싸움으로 둘이 화해하게 되므로)
 - 동백꽃 : 남녀의 순박한 사랑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있다[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중심이 '닭싸움'임을 예고].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 푸드덕 하고 닭의 헛소리[닭이나 새 등이 날개를 벌려 탁탁 치는 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 니나다르랴, 두 놈이 또 열리었다.[서로 얽히게 되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머리의 속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박하게[공골차고 다부지게] 생긴 놈이 덩저리 [덩치의 속어]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마구 때리거나 물어서 괴롭히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 하고 면두[뺏]의 경각강원 지방 사투리. 꿩이나 닭 같은 조류의 이마 위에 붙은 살 조각]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덕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아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선명하게 시각적으로 묘사]. - 나와 점순의 갈등을 상징하는 닭싸움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자기네 닭의 피를 흘린 모습을 보고 몹시 화가 난 상태를 묘사].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 먹고 헛매질[치는 척하면서 단 데를 참]로 떼어만 놓았다.[나는 점순네의 땅을 소작하는 처지이기 때문]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화를 돋우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릉거리는지 모른다.[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진술 / 갈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작중 화자가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계기] - 닭싸움으로 '나'를 괴롭히는 점순

나를 전[현재에서 과거 시간으로 전환, 역순행적 구성] 감자 쪼간[일, 사건의 뜻인 듯함]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썩이질[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짓]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내외 : 외간 남녀 간에 얼굴을 바로 대하지 않고 피함], 오늘도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하물며]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니?"[떼지어서 하니 - 방언의 구사]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 점순이가 '나'에게 접근함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을 눈치채지 못함 - 해학적 표현].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끼 [집 가까운 곳, 집 쪽]를 할끔할끔[남의 눈치를 살피려고 곁눈으로 살그머니 할겨 보는 모양]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큰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갈등과 사랑의 매개체]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언제 구웠는지~뿌듯이 쥐였다. : '나가 감자를 매우 먹음직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느 집엔 이거 없지?[점순의 집은 여유 있고, '나의 집은 여유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나중에 '감자'주는 것을 거절함]"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나의 오해 - 자존심이 상함]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날 테니 여기서 열린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나를 좋아하는 점순의 마음을 반영, 그 관심의 표시를 거절함으로써 두 사람간의 갈등이 유발, '나'와 '점순'의 심리를 추리할 수 있는 단서, 점순이의 적극적인 태도]가 맛있단다." -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점순이

"난 감자 안 먹는다, 네나 먹어라."[점순'이의 호의를 무시하는 이 말로 인해서 점순이는 그 복수로 닭싸움을 시킨다. / 갈등의 원인]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나의 무뚝뚝하고 순박한 성격이 드러남].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싸근싸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걸 또 뭐야 싫어서 그 때 서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흥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엮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힘하게[지체하지 않고 매우 빨리 가는 모양] 달아나는 것이다. - '나의 거절에 대한 점순의 반응

[교재 수록 부분 1 시작]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솔직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열병이[열간이. 됴됨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지게 후려때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지주의 위임을 받아서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배자의 속어인 듯함. 여기서는 마름과 소작인 사이에 교환한 소작권 위임 문서, 즉 소작권의 뜻으로 쓰임]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나와 점순이의 사회 계층적 관계가 제시됨].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 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멀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나가 점순이에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 점순이네와 신분 차이를 의식하는 '나'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담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아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라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 놓을 자리를 흠바닥 그대로 둔 곳]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탤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닭싸움은 인물의 심리를 대리 표출, 사건 전개에 중심축,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장치,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을 방어적으로 드러냄 /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했기 때문임]

요렇게 암광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짱깨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몹시 성을 내어 두 눈에 핏발이 서는 일]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마름과 소작인의 관계 때문에 주위의 눈치를 보는 장면]. 잡은 참 지게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랴구 그러니?"

[교재 수록 부분 1 끝]

하고 소리를 뻑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너 보란 듯이 내 앞에 쉼터치고[주먹으로 힘껏 때리고] 있음이 확실하다.[닭을 때리는 것은 '나'에 대한 점순의 애정 표현의 한 방법이다. 점순은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는 '나'에게 잔뜩 화가 나 있다.] - 우리 닭을 괴롭히는 점순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튀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맛을 적마다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점순의 애정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냄']. 왜냐 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쇠[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는 나뭇가지]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우리 닭이 점순에게 맞는 것과 내가 울타리를 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내가 손해 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임]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나?"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꺾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끼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때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끼를 항하게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암탤이 풍기는 서술에 나의 이마뼈 기에다 물찌뚱[설사할 때에] 죽죽 내쫓는 똥을 찍 같겼는데[

나가 더욱 약이 오른 요인으로, 비속어를 사용하여 독자의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적인 표현임],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싶다. - 점순의 행동에 약이 오른 '나'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애! 너 배넛병신[태어날 때부터의 병신]이지?"['나가 점순이의 애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도 좋으련만,

"애! 너, 느 아버지가 고자[생식 능력이 불완전한 남자]라지?"[자신의 애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만 보이는 '나'에 대한 점순의 서운함이 드러남]

"뭐? 울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병거지[울화가 치밀어 답답한 기운]가 나서 고개를 핵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 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나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 마디도 못 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이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욕을 이토록~불끈 내솟는다. : 마름과 소작인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의식하고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는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탤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탤과 싸움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탤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씹이라면 화를 치는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하면 우리 수탤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꺾어 내다가 씹을 붙인다. -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점순

이렇게 되면[점순이는 '나'에게 욕을 퍼붓기도 하고 일부러 닭싸움을 자주 시킨다] 나도 다른 배차[계획이나 대책]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적극적인 복수의 행동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앞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첨예화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하루는 우리 수탤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씹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끼로 들이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해 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 점순네 닭을 이기고 싶은 마음

발에 두엄을 두어 짐 저내고 나서 실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희 울 안에서 헨 옷을 뜯는지 혹은 숨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네 수탤이 노는 발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일이 되어 가는 사정을 살펴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멀리서 씹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닭에게 고추장을 먹인 효과]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갯죽지만 푸드덕, 푸드덕 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 뿐으로 한 번 쪼아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은 어떤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손톱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 파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설하며[멈치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탤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사나운[매우 역세고 사나워서 휘어잡기 어려움]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미워하는 대상이 잘못되는 것을 마음 속으로 고소하게 여겨] 죽겠다. 그 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쌈을 붙여 놓는 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쓰지 살을 찌푸렸다. -

용을 쓰며 잘 싸우는 우리 닭

나는 두 손으로 불기 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 한다! 잘 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뉘이 풀리어 기동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 하면, 큰닭이 한번 쪼인 양값으리[양값음]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탉은 짚썩 못 하고 막 굶는다 [은근히 해를 입어 골병이 든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 '나의 수탉이 다시 무릎을 꿇음

수탉이 다시 무릎을 꿇음

나는 보다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더 먹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펍 후회가 난다[나의 어리숙한 행동이 독자에게 골계미를 제공함 / 골계미는 지적인 언어의 유희로서 무관심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사상(事象) : 어떤 사정 밑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이나 사실의 현상]을 의외적인 곳에서 돌발적으로 상호 작용하게 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기지에 해당한다. 골계미에는 조소와 비난을 내포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사상(事象)에 대한 예리한 공격성을 가진 풍자가 있다. / 우아미는 조화의 우아함에 속하는 매력을 의미하며 관용의 특성을 보인다. 우아미는 감성과 지성이 만나는 조화이며 황홀감, 공포, 관능적 자극을 동반한다. 비장미는 불가피한 운명의 갈등을 통하여 나타나며, 연민과 공포를 통하여 감정을 정화하는 미이다. 비장미는 적극적 가치가 있는 것, 즉 비극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고귀한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성립되는 인간의 위대성이 침해되고 멸망하는 비통한 과정 내지 결과이다. 순수미 혹은 순정미는 조화성, 완결성, 쾌감성 등의 제 특질이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게 구현되는 미다. 이것이 갈등이 없는 통일 상태를 가리킨다. 송고미는 초월적인 동경의 미로서 위대한 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고미를 구현한 문학 작품에서 독자는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엄숙, 경탄, 외경의 자세를 갖게 된다. 즉, 완전성과 탁월성으로 인해 설득되는 것이 아닌 엑스터시(ecstasy, extasy : 무아경(無我境), 황홀, 환희의 절정)를 경험하게 된다. 장독계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초 먹질 않는다. 나는 하릴없이 닭을 반듯이 눕히고 그 입에다 꺾린 물부리[담배 또는 꺾린을 끼워 입에 물고 빠는 물건]를 물리었다. 그리고 고추장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 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킁 킁 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데 덜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두어 종지 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빠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화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 놓으니 이 망한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화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진퇴양난]

소나무 삭정이[말라 죽은 가지]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 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동경동[어떤 일을 자상히 챙기지 않고 대충하는 모양] 나무를 지고는 부리나케 내려왔다.

거지만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봄철에 물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비틀어 뽑은 통껍질이나 밀짚 토막으로 만든 피리.]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작품의 동백꽃은 흔히 말하는, 빨간 동백꽃이 아니다. 강원도 지방에서 잘 자라는 등근잎생강나무의 꽃으로, 꽃은 3월에 노란색으로 피며, 열매는 공 모양으로 9월에 검게 익는다.]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배경 묘사]. 그 틈에 끼여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소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덕, 푸드덕 하고 들리는 닭의 헛소리다.

[교재 수록 부분 2 시작]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잡아 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 점순이 다시 닭쌈을 시킴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펍 쏟아졌다. 나무지게도 벗어 놓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막대기를 뺀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 지경[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 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히[성질이 너그러우며 언행이 활발하게] 일 잘 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나와 갈등이 있기 전에 '나'도 점순에게 호의가 있었음],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점순에 대한 반감이 절정에 이른 상태를 비유함]. - 점순에 대한 '나의 적개심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부지불식(不知不識) : 생각지도 알지도 못함]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엎었다[나의 분노가 극에 달함].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흘뜨고[눈알을 굴려 눈시울을 치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나가 점순네 닭을 때려 죽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점순과 '나의 화해가 이뤄진다.]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신분의 차이 강조] 하고 복장[가슴의 한복판]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이성을 되찾은 '나'가 자신이 저지른 일로 벌어진 사태를 예상하고 불안해 하는 중이다. '나의 마음 속에 사회계층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하게 함]. -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이고 난감해 하는 '나'

[교재 수록 부분 2 끝]

나는 비술비술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다른 일이 되는 바람]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자신이 가져올 행동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어린아이 같은 '나', 순박함이 웃음을 자아냄].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터 안 그럴 테냐?"[너 이제 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을 거지? 혹은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 줄 거지? 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는 얼떨결에 '안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는 점순이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어리숙한 모습에서 독자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뭇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킨 이유 :

'나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어적 표현]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나의 안도의 심리]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 점순의 회유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펍 쓰러진다[점순이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아직 깨닫지 못한 '나'].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등장 인물 간의 애정을 나타내며, 갈등이 해소되는 서정적인 배경이며,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백꽃은 붉은 꽃이지만, 이 소설에서의 동백꽃은 생강나무의 꽃을 말한다. 강원도에서는 이 생강나무의 꽃을 동백꽃이라고 부르는데, 봄에 노란 꽃이 피며 열매는 기름을 짜는 데 쓰기도 한다]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매운 맛이나 냄새 때문에 혀와 콧속이 알알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애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름답게 승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정신이 아찔하였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나가 비로소 점순의 애정을 깨닫고 자신도 거기에 도취되고 말았음을 알 수 있다. / 점순이라는 이성이 지닌 향기]

"너 말 마라."

"그래!" - 동백꽃 속에 파묻혀 애정을 나누는 두 사람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두 사람의 도취된 감정을 현실로 되돌아오게 함]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내는 성]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빠지[위로 내빼지] 않을 수 없었다.[두 남녀 주인공의 순박한 성격을 행동으로 보여줌] - 점순 어머니의 등장으로 헤어지는 두 사람

[동백꽃에 보이는 반어의 양상 : 점순의 속마음과 행위의 불일치('나를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싫어하는 체하며 화를 돋우는 점순의 행위), 독자의 기대와 주인공의 행위의 불일치(둘이 사랑에 빠지는 낭만적 장면을 기대하지만 그런 기대는 거의 끝부분까지 이루어지지 않음), 남녀 역할의 바뀜(창작 당시의 현실과는 다른 남녀의 역할)]

- ▶ 지은이 : 김유정
- ▶ 갈래 : 단편 소설
- ▶ 배경 : 시간(1930년대). 공간(인심이 순하고 소박한 산골 마을)
-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그리는 데 효과적이며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 성격 : 향토적, 해학적
- ▶ 문체 : 이 작품에는 토속어와 개인어가 풍부하게 구사된다. 이것이 그의 소설에 활력을 주고 산문성을 확보하게 한다. 지문이나 대사에 구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김유정의 소설에는 토속어, 방언, 개인어가 많이 쓰인다(의성어, 의태어에 유의)
- ▶ 표현 : 표현의 아이러니-점순이의 말투. '나'를 좋아하면서도 오히려 짓궂은 행동으로 괴롭힌다. 점순이는 성(性)을 알지만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황의 아이러니-주인공 '나'의 우직한 행동은 가난(소작인)과 어리석음 때문에 빚어진다.
- ▶ 구성 : 현재 - 과거 -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임.('나'와 점순 사이의 갈등을 현재 시점으로 가볍게 제시하고, 전개와 위기 부분에서는 과거로 돌아가 갈등의 원인을 상세하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심화, 고조되는 과정을 이야기한 다음, 현재로 돌아와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화해를 이루게 된다. 사건들이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발단 : 닭싸움으로 점순이가 나의 약을 자꾸 올림. / 수난을 당하는 '나'의 닭(현재)

전개 : 나를 전, 감자를 준 호의를 거절당한 점순이가 나의 닭을 더욱 학대함.(과거)

위기 : 나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네 닭과 싸우게 했으나 소용없음.(과거)

절정 : 빈사 지경이 된 닭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닭을 때려죽임.(현재)

결말 : 점순이가 닭 사건을 봐 주기로 하여 함께 동백꽃 속에 넘어져 파묻힘.(현재)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 : 점순이가 준 감자를 '나'가 거절함(과거) - '나'가 우리집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는데도 '나'의 닭이 패함(과거) - '나'가 나무를 하려고 집을 나서자마자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임 -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인 것을 보고 화가 난 '나'가 점순이의 수탉을 때려 죽임 - 점순이와 내가 화해함.)

▶ 제재 : 동백꽃 핀 봄날 산골 마을의 젊은 남녀

▶ 주제 : 산골 마을 젊은 남녀의 순박한 사랑

▶ 등장 인물 :

나 : 소작인의 아들. 순박하고 천진하며 감수성이 둔한 편이나, 저 나름의 눈치는 없지 않다. 우직한 인물의 전형.

점순이 : 마름집 딸. 갸름스럽고 조숙하여 '나'의 무딘 감수성을 자극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발한다. 개성적 인물.

▶ 줄거리 : '나'는 점순네 소작인의 아들인데, 닭싸움으로 늘 속이 상했다. 얼마 전에 점순이가 준 감자를 받아먹지 않은 뒤부터는 더욱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점순이는, 힘센 자기네 수탉과 우리 닭을 싸우게 해서 조그마한 우리 수탉을 괴롭히는가 하면, 우리 씨암탉을 잡아 마구 두들겨 주기도 했다. 화가 난 '나'는 우리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 싸우게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늘도 산에서 나무를 지고 내려오다가 보니, 산기슭에서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닭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다. 화김에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인 '나'는, 겁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점순이는 용서해 주겠다고 하며, '나'를 잡고 동백꽃 속에 넘어져 버린다.

▶ 해설

이 작품은 193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김유정 소설의 예술성을 대표한다. 토속적인 배경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 우리 고향의 또 다른 한 모습과 인간의 강박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단편소설이다. 소작인과 마름이라는 신분 관계에 약간의 갈등은 내포되어 있으나, 그것은 부차적이고 강조점은 향토성과 토속적 미학에 있다.

'동백꽃'은, 인생의 봄을 맞아서 이성에 눈떠 가는 사춘기 남녀의 애정이 풍속도로 보는 관점과, 사회 계층간의 관계에 강조점을 두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작품 전체의 줄거리로 볼 때, 계층 문제보다는 순박한 시골 청소년의 사랑이 주제로 다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유정 소설 일반이 그렇듯이, 이 작품에서도 현실에 대한 대결 정신보다는 익살스럽고 유쾌한 현실 파악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웃음을 머금을 수 있다. 즉, 토속적 어휘의 숨김 없는 구사로 나타나는 인물의 희화(戲畵)에 의해, 우직하면서도 애련(愛憐)을 지닌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만이 가지는 독특한 풍속이나 풍물, 방언 또는 속어의 구사, 향토적 배경 등은 앞서 든 해학적 어조와 더불어 이 작품의 토속성을 한층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김유정의 작품 세계는 향토성, 해학성, 풍자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하의 농촌의 궁핍성을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순수한 토속적 농촌 사회를 서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나와 점순이는 소작농의 아들과 마름의 딸이라는 관계에 있지만, 이들 사이의 계층적 갈등보다는 사춘기 남녀의 순박하면서 미묘한 사랑의 감정과 심리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는 순박하고 천진하면서도 우직한 데 비해 점순이는 활달하고 앙큼하면서도 도전적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성격적 차이에서 오는 사춘기 남녀의 미묘한 사랑의 감정을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산골의 동백꽃을 배경으로 구수한 토착어를 사용함으로써 흙 냄새 물씬 풍기는 향토적 서정성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구성은, 시간적인 계기(契機 :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성을 엄격히 지키기보다는, 현재와 과거가 인과적인 결속을 위해서 역전 교체되는 구성을 특징을 보인다. 작품의 시간적 구조는 현재, 과거, 현재의 순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닭의 싸움을 매개로 한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연결된 것이며, 인물 행위의 동기를 해명하는 유기적 구성이다. 시간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갈등과 분규에 해당하고 시간적인 현재가 갈등의 정점을 이루었다가 다시 화해의 대단원으로서 종결되어 있는데, 시간적인 현재, 즉 갈등의 심화를 먼저 제시하면서 시작되는 이 작품은 그 갈등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절반 가량을 과거를 서술하고 있다. 또 여기서 닭싸움은 '나'와 점순의 심리를 매개하는 구성적 장치이며, 동백꽃에 쓰러져 텅구는 결말은 일종의 경약법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상 특징을 보인다.

3.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비평],[김춘수, '꽃'], [오규원, '꽃의 패러디'] 주요 내용

1. 주요 용어 설명

- **심미적 체험** :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 EBS 교재에는 단순히 사물의 존재 이유 등에서만 설명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학 작품의 형식(운율, 구조 등)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가)단락의 통사** : 문장이라는 뜻이다.

- **1번 문제 5번 선지의 생태적 차원** : 생물학적 차원

2. **패러디** : 기존의 작품을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이다. '창조성'이 결합된다면 그것은 기존 작품에 대한 모방에 불과하다. 이러한 패러디를 설명하기 위해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오규원의 '꽃의 패러디'를 비평과 함께 수록하였다.

3. 김춘수의 '꽃'의 주요 내용

- 의미있는 존재와 의미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시어의 구분

⇒ **의미있는 존재** : 꽃, 무엇, 눈짓

⇒ **의미없는 존재** : 몸짓

주제 : 의미있는 존재에 대한 희구(바람). (의미있는 존재라는 것은 타자가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한 영화배우도 남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유명하다고 불리어야만 의미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남들에게 의미있는 존재로 부여되기를 원한다.)

4. 오규원의 '꽃의 패러디'의 주요 내용

- 오규원이라는 작가는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하여 형식적인 구성은 비슷하지만 전혀 새로운 주제의 작품을 만들었다.

- 같은 의미의 시어 구분

왜곡 = 의미의 틀이 완성

주제 : 대상에 대한 인식, 명명(이름을 지음, 부름)은 대상을 왜곡시킨다. (우리가 다른 대상을 인식하여 명명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태양만한 크기의 외계인이 우리를 세포(보통 명사)라고 분류하고 '니뿔라꾸'라는 고유 명사를 붙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미의 틀을 만드는 것은 대상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한없이 대상을 왜곡시킨다는 것이 이 시의 주제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존재 인식의 수단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명명이전의 상태-무의미한 존재

I→명명 이전의 상태-무의미한 존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나와 그(녀)는 서로 교섭이 가능한 관계(상호주체적 관계)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

II→의미 부여의 순간-의미 있는 존재 1연~2연:과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본질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갈구적 어조

III→의미 부여의 소망-본질 부여에 대한 근원적 갈망

'우리'들은 모두

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으로 확대

『무엇』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

갈구적 어조

IV→진실된 관계의 소망 3연~4연 현재

- 김춘수, 『꽃』 -

※ 주제 찾는 방법 : 유사한 의미의 시어 연결, 끝부분 요약

주제 :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 작품 해석의 포인트

: '꽃', '무엇', '눈짓'이 모두 같은 의미의 시구라는 것을 파악하고 끝부분의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시 해석의 핵심이다. 의미있는 존재에 대한 희구(바람). (의미있는 존재라는 것은 타자가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한 영화배우도 남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유명하다고 불리어야만 의미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남들에게 의미있는 존재로 부여되기를 원한다.)

※ 해설

이 시에 등장하는 '그'는 '몸짓→꽃→의미'로 변화하고 있다. 1연에서 '그'는 다만 한 '몸짓'이었고, 정체 불명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2연에서 '나'의 부름에 의해 비로소 '그'는 정체를 밝히며 '꽃'으로 다가온다. 3연은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渴望)이 나타나 있다. 주체인 '나'도 대상인 '너'에게로 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4연에서 '그와 나'는 '우리'로 확대되어 있다. '나와 너'의 존재론적 갈망이 '우리'라는 모든 존재의 소망으로 확대된 것이다.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의미를 인식하는 행위이며,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작가는 이 시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존재론적 탐구의 시가 아니라 단순한 연사로 감상할 수도 있다. 단순하고 정제된 형식은 이 시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춘수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성격 : 관념적, 철학적, 주지적

어조 : 반성적 어조

표현 : 간결하고 쉬운 시어들을 사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함

어조 : 사물의 존재 의미를 파악하려는 지적이고 철학적인 목소리

운율 : 내재율

소재 : 꽃

주제 : 존재의 본질과 의미 탐구

1. 지은이 : 김춘수 (1922 ~) 시인. 경남 충무 출생. 사물의 이면에 내재하는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주지적 서정의 독특한 수법으로 형상화했다. 대표작으로 '꽃을 위한 서시', '꽃',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처용 단장', '분수(噴水)' 등의 시가 있다.

2. 시구 풀이

① 내가 그의 ~ 지나지 않았다. : 그가 지니고 있는 빛깔과 향기(본질)가 아직 나에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② 내가 그의 ~ 꽃이 되었다. : '나'가 그의 본질을 인식하여 의미를 부여했을 때, 즉 그의 본질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며 '나'에게 의미있는 존재가 되었다. '꽃'은 의미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③ 나의 이 빛깔과 ~ 꽃이 되고 싶다. : '나'도 '나'의 본질을 드러내며 누군가에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 제자인 '꽃'의 특성에 비유해서 표현하였다.

④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 '나'의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들'은 '나+그'로, 주체이면서 객체가 된다.

⑤ 너는 나에게 ~ 되고 싶다 :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 시는 한때 '사랑시'로 널리 애송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이 많이 인용되었다. 이 부분에 나타난 '눈짓'이라는 시어는 '꽃', '사랑', '의미' 등 여러 번의 퇴고를 거친 표현으로서, '꽃'과 마찬가지로 본질을 이해받은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3. '이름'의 의미

① 어떤 사물에 처음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물은 '빛깔과 향기'라는 물적 상태로만 존재하는 모호성을 벗어나 존재의 근거를 획득하게 된다.

② 사물과 거기에 이름을 붙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사물이 그 자체로만 존재할 뿐, 다른 존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③ 서로가 서로에게 본질에 알맞은 이름으로 불러야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으로 본질에 맞는 이름, 즉 존재와 삶의 의

미를 알고 싶은 욕망을 암시한다.

4. 인식의 점층적 확대

① 그(녀) → 나 → 우리 : 인식의 범위 확대

② 몸짓 → 꽃 → 눈짓 : 인식의 내용 확대. 인식의 부재인 '몸짓'에서 일방적 인식의 의미인 '꽃'으로, 다시 서로를 인식하는 의미인 '눈짓'으로 확대

5. 사상의 전개

① 1연 :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의 상황

② 2연 : 대상의 본질을 인식한 이후의 상황

③ 3연 :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④ 4연 :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소망

6. 핵심 정리

①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

② 어조 : 간결한 소망의 어조

③ 성격 : 관념적, 철학적, 상징적

④ 주제 :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 싶은 소망

※ 핵심 정리

지은이 : 김춘수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성격 : 고백적, 비판적

표현 :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드러냄

특징 : 김춘수 '꽃'을 패러디하여 새로운 관점을 나타냄

운율 : 내재율

주제 : 존재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인식 행위

내가그의이름을불러주기전에는
그는다만
왜곡될순간을키다리논기다림
그것에지나지않았다.

내가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명명의 행위
그는곧나에게로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대상의 본질이 왜곡됨.

내가그의이름을불렀을때
그는곧나에게로와서
풀,꽃,시멘트,김,담배공초,아스피린,아달린이아닌 / 금잔화,
작약,포인세티아,개밥풀,인동,황국등등의/ 보통명사나수명사
가아닌
의미의틀을만들었다.

▶ 사물의 이름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흔히 사물의 이름을 정할 때, 보통 명사를 먼저 명명하고 그 후에 고유 명사를 명명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대상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들은모두/명명하고싶어했다.

▶ 인간은 항상 언어를 이용하여 대상을 명명한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나타낸 구절이다.

너는나에게나는너에게.

그리고그는
그대로의미의 틀이 완성된다.
존재의 본질이 왜곡되어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됨.
다시다른모습이될그순간
그리고기다림그것이되었다.

- 오규원, 「「꽃」의 패러디」

※ 주제 찾는 방법 : 유사한 의미의 시어 연결

주제 : 명명으로 인한 대상에 대한 왜곡

⇒ 작품 해석의 포인트

: '왜곡', '명명', '의미의 틀이 완성'이 모두 같은 의미의 시구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물에 대한 세세한 이름을 지을수록 사물은 더욱 왜곡된다는 것이다.(우리가 다른 대상을 인식하여 명명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태양만한 크기의 외계인이 우리를 세포(보통 명사)라고 분류하고 '니뽀라꾸'라는 고유 명사를 붙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미의 틀을 만드는 것은 대상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한없이 대상을 왜곡시킨다는 것이 이 시의 주제이다.)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소통의 수단(의미 부여의 매개체)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무의미한 존재-사랑을 모르는 존재
단추를 누르기 전의 라디오_무의미한 존재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라디오 사랑을 전하는 행위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유의미한 존재-사랑하는 사이
전파가 된 라디오-사랑의 대상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삭막하고 고독한 현대인 소통의 수단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음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마음내키는 태도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손쉬운 사랑의 행위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
 추구의 대상, 비판의 대상
가볍고 편한 사랑을 추구하는 현대인 비판

- 장정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 주제 찾는 방법 : 같은 의미의 시어, 끝부분 요약

주제 : 기계 같은 사랑을 하는 세태에 대한 풍자

⇒ 작품 해석의 포인트

: 마지막 연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마지막 연에서 라디오는 사랑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는 사랑이다. 과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결국 화자는 반어적으로 우리 대부분이 그러한 가벼운, 기계적인 사랑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을 한 것이다.)

※ 핵심 정리

지은이 : 장정일

시대 : 1980년대

성격 : 패러디, 해체적

어조 : 풍자적, 관념적, 비판적

구성 :

1연 :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존재

2연 : 접근이 허락된 존재

3연 : 타인에게 접근의 허락을 받고 싶은 화자의 소망

4연 : 편리한 사랑을 원하는 '우리'의 소망

제재 : 라디오(김춘수의 시 '꽃'), 현대 도시 문명

주제 : 진정한 인간 관계에 대한 소망, 사랑마저도 편리하고 익명적(匿名的) 이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의 소외된 인간 관계, 현대인들의 가벼운 사랑 비판

특징 : 김춘수의 시 '꽃'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표현과 구성에 있어서 원작의 틀(운율, 통사 구조 등)을 따르고 있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드러냄

감상 : 이 시는 김춘수의 시 '꽃'을 패러디(parody)하여 재창작함으로써 원작과는 다른, 작가의 독특한 관점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원작인 '꽃'의 의미를 뒤집어 현대 사회의 인스턴트 식(式)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다른 작품으로 오규원의 '꽃의 패러디'가 있다.

이 시는 김춘수의 시 '꽃'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인 '꽃'의 의미를 작가 특유의 방법으로 뒤집어 현대 사회의 풍속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타인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메마른 태도로 나타나며, 또한 자신이 내릴 때는 애정을 나누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상대가 곧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태도로 그려져 있다. 김춘수의 시 '꽃'을 패러디함으로써 작가는, '꽃'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진지하고 친밀한 인간 관계가 오늘날에도 감동과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는 반문을 던지고 있다.

4. 문학과 삶 [이청준, '눈길']

1. 이론 주요 내용

- 이 단원의 이론에서는 문학의 가치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인식적, 미적, 윤리적 가치의 의미를 정확히 정리해 놓는 것이 핵심이다.

인식적 가치 : 인간과 세계의 진실과 관련된 가치

미적 가치 : 문학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가치

윤리적 가치 : 규범과 실천의 문제와 관련된 가치

2 '눈길'의 출제 지문 상황

- '나'는 시골에서 살다가 집안의 도움 없이 상경하여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아내와 함께 휴가 기간 동안 시골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 내려와 있다. 시골의 어머니가 사는 집은 단칸방이 있는 초가집이다. 어머니는 사후 자신의 장례 치를 것을 염려하여 집에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한다.(조문객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하는데 방이 하나라 바로 관 앞에서 밥을 먹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침 정부에서 초가집은 현대식 지붕으로 모두 개량하라는 지붕개량사업이 한창이다. 지붕개량사업도 할 겸, 집을 증축하자는 것이다. 다만 돈이 없어 곤란하다는 것을 '나'에게 말한다. 이 말에 '나'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자신은 집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소설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고, 어머니를 '노인'이라 지칭하여 서술한다.) 그러나 자신이 어렸을 때, 자수성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우지 못 한 어머니의 한을 듣고 '나'는 뉘우침의 눈물을 흘린다.

지문의 상황은 '나'가 집안이 망한 것을 듣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급히 내려온 후, 다시 서울로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나'는 막걸리를 마시고 자고 있고 아내와 어머니가 그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잠이 깨었으나 외면했던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까 두려워서 자는 척을 하며 둘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내에게 '나'를 터미널까지 배래다주고 혼자 눈길을 걸어 돌아오면서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린 것을 이야기한다.

3 어휘의 의미

채근 : 나무람.

4 주요 내용

눈길의 의미 : 어머니의 사랑

5 액자식 구성 (내화 - 어머니가 눈길을 혼자 걸어 왔던 이야기, 외화 - 집을 고쳐야 하는 현재의 이야기)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6 참고작품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난 작품)

고려가요 : 사모곡 시조 : 반중 조홍감이~

1. 지은이 : 이청준 - 소설가
2. 갈래 : 현대소설, 단편 소설, 순수 소설, 귀향 소설, 액자 소설
3. 성격 : 상징적, 회상적
4. 배경 - 공간적 : '나'의 고향 / 시간적 : 1960-70년대(지붕 개량 사업이 한창이던 시대)
5.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6. 특징
 - 1) 액자식 구성 (겉 이야기 : '나의 이야기' / 속 이야기 : 노인의 이야기)
 - 2) 주로 인물간의 대화에 의해 사건이 전개됨
 - 3) 상징적, 우회적, 비유적 표현을 동원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 상태나 주변의 사물을 표현
 - 4) '귀향형 소설'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
 - 5) '나'가 아내와 노인의 행동을 묘사하고 심리를 해설함
 7. 주제 : 눈길에서의 추억을 통한 인간적인 화해 /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화해
8. 요약
 - 어릴 적부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나'는 평소 어머니에게 아무 빛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처럼 휴가를 얻어 아내와 함께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 갔지만 고향집 지붕을 개량하고 싶다는 소망을 자꾸 내비치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서둘러 올라가려 한다. 그러나 아내는 나와 어머니간의 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과거의 이야기를 조르고, 이를 엿들은 나는 어머니의 애뜻한 사랑을 확인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9. '웃궈'의 상징적 의미
 - 1) 과거 회상의 매개체
 - 2) '나'에 대한 노인의 애정을 상징
 - 3) 옛날 살림살이의 흔적
 - 4)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
 - 5) 노인과 자식이 함께 했던 추억을 상징
 - 6)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물
10. '눈길'의 상징적 의미
 - 1) 나 - 남 몰래 집을 나서야 했던 부끄러운 기억
 - 몰락해 버린 집안 때문에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할 운명
 - 노인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함
 - 2) 노인 - 몰락한 집안에서 겪어야 했던 삶의 시련과 고통
 - 자식을 떠나보내고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길
 - 자식을 감싸는 송고하고 고결한 사랑
 - 노인의 시련과 고통스러운 생애를 상징
11. 객관적 상관물
 - 1) 치차나무 : 곤혹스러운 자리를 억지로 참고 있어야 하는 자신의 심리 상태와 유사함
 - 2) 매미 울음 소리 : 괴롭고 답답한 나의 심리
12. 아내의 역할
 - 1) 객관적인 시각을 독자에게 제공함
 - 2) 노인과 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함
 - 3) 나가 노인의 사랑을 깨닫도록 유도함
 - 4) 노인의 깊은 한(恨)을 들추어 냄

▶ 작품 해제

갈래 : 단편 소설, 순수 소설, 귀향 소설
 성격 : 회고적, 상징적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배경 : 여름 하루 낮과 밤 동안의 시골 고향 집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주가 되지만 관찰자적 입장의 서술도 보임
 구성 :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성(부분적으로 과거의 추억이 과거 회상을 통해 삽입되어 있어 역전적 구성으로 볼 수도 있음)
 특징 : 상징과 비유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음. 주로 인물 내면의 심리적 갈등을 다루고 있음. 우회적인 말하기 방식을 통해 긴장감을 줌
 주제 : 눈길에서의 추억을 통한 인간적인 화해. 자식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사랑의 깨달음을 통한 화해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고향에 대해 그리움과 함께 증오감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어떤 일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고향에서의 특수한 체험을 통해 인간적 화해에 도달하게 되는 귀향형 소설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소설은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형의 노름으로 인해 논밭과 집이 넘어간 집안에서 자수 성가했다가 자부하는 아들, 집안의 불행이나 재앙을 자신의 덕 없음과 박복(薄福)에다 돌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어머니가 그들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빛을 지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잠자리에서 노모와 자신의 아내가 나누는 이야기—아들과 함께 새벽 눈길을 걸어 아들을 배웅하고 다시 그 길을 되짚어 온—를 들으며 그 동안 외면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감동을 이 소설은 전해 주고 있다.

▶ 작품 이해

■ 구성

발단 : 늙은 노모를 오랜만에 찾아온 '나'가 내일 아침 올라가겠다고 함
 전개 : 지붕 개량을 은근히 바라는 노모와 이를 외면하는 '나'
 위기 : 옛집을 팔 때의 상황과 과거의 이야기를 묻는 아내
 절정-결말 : 아들을 떠나 보낼 때 노모의 심경, '나'와의 갈등 해소

■ 인물의 성격

이 소설의 인물들은 평면적이고 개성적인 성격들을 보여 준다.
 나 : 자식 노릇을 못한 자신이나 자식 뒷바라지를 못해 준 어머니나 마 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진 이기적 인물이다. 어머니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머니로부터 피하고자 한다.

노모(노인) :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다가 결국 며느리의 독촉에 못 이겨 덤덤하게 과거사를 이야기한다. 소극적이며 체념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며 지극하고 순수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다.

처 : 남편의 시어머니에 대한 거리감을 눈치채고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시어머니로 하여금 과거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시어머니의 깊은 한을 들추어 내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 작중 인물 심리 파악

□ '어머니'에 대한 '나'의 심리 : 이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한다. 이 '노인'이라는 호칭에는 감정이라곤 전혀 들어 있지 않으며,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한 울의 연대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나는 시골에 내려가기 무섭게 서울로 다시 올라가곤 한다. 서울에 딱히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서둘러 시골을 떠나려는 그의 태도에는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회피의 심리가 깔려 있다.

□ '나'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 : '어머니'는 이와 같은 아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한결같은 배려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조차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고 체념적이다.

□ '나'와 '어머니'에 대한 '아내'의 심리 : '아내'는 두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있다.

■ **우회적 표현**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단도직입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암시하거나 간접적으로 돌려서 나타내는 것을 우회적 표현이라고 한다. 주로 상대방의 이해, 설득,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 상태를 끊임없이 고려하면서 동시에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관점에 따라 생각하게 함으로써 직설적이고 명료한 의사 표현과는 다른 효과를 가진다.

예 : <남의 일 말하듯이 접근하고 있음 - 집을 개축하고 싶음> → 노인의 소망

이 글에서 노인은 자신의 소망을 우회적 방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가 부담을 느낄까 봐 '나'의 심리 상태를 살펴 가며 화제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다.

완곡 어법 : 불유쾌한 감정을 환기시키는 어휘를 숨기고 다른 말로 대치시키거나, 직접적·노골적인 표현을 피하고 부드럽고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것

예 :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없겠니?”(표현) → “좀 더 일찍 일어나라.”(속뜻) → 명령(의도)

■ **상징적 표현의 의미**

‘빛’의 의미 : ‘빛’은 내가 성장하면서 노인에게 입은 혜택,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나’는 노인에게 받은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새 성주 : 새 집주인(아들 ‘나’)

장죽불 : 노인의 소망

빛 : 노인에게 대한 책임감, 노인에게 갚아야 할 것

■ **비유적 표현**

발자국, 산비둘기, 눈을 쓰고 있는 나무 : 아들

굽이굽이 외지기만한 산길 : 혼자 남은 노인의 외로움

이런 다양한 비유적 표현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아들에 대한 노

인의 연민과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먼 길을 빈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과 아들을 보내고 난 후 느끼는 외로움과 허망함 등의 감정이 효과적으로 나타나 있다.

■ **형상화의 예**

땡벌을 견디고 서 있는 작은 치자나무 : ‘나’의 불편하고 짜증이 나면서도 어색한 자리를 참고 있어야 하는 심리를 보여 줌. 치자나무는 ‘나’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개관적 상관물이다.

습지에 돌아 오른 여름 버섯 : 집에 대한 지배적인 인상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나’의 집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보여 준다.

■ **‘옷궤’의 상징성**

노인에게 ‘옷궤’는 ‘집을 지키고 있다’는 흔적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옛날에 살던 집과 노인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마지막까지 노인이 지니고 있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노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기 위해 옛집 살림살이의 흔적으로 남겨 놓은 ‘옷궤’는 아들에 대한 노인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어머니에게 혹시 갚아야 할 ‘자식의 도리’가 있지는 않은가 불안해하는 ‘나’에게 ‘옷궤’는 마치 ‘빛 문서’처럼 보여 불쾌하고 꺼림칙하게 만드는 물건이다.

■ **‘눈길’의 의미**

‘눈길’이 주는 이미지는 ‘나’와 ‘어머니’에게 각기 따로 작용한다. ‘나’에 있어서 ‘눈길’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쓰라린 추억과 몰락해 버린 집안과 스스로 자수성가(自手成家)해야만 하는 운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머니’에 있어서 ‘눈길’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상징물로서,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혹독한 시련이면서도 따스한 자식에 대한 사랑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5. 한국 문학의 개념, 범주, 갈래 [나비야 청산에 가자, 호접청산거]

1. 이론 주요 내용

- 한국 문학의 갈래 중 작은 갈래가 학교 내신 시험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	내용
서정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가사, 한시, 서정 민요, 신체시, 현대시 등
서사	신화, 전설, 민담, 가전, 판소리,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
극	가면극, 인형극, 창극,신파극, 현대극
교술	경기체가, 약장, 가사, 가전, 고전 수필, 현대 수필 등

2 출제 작품 해설

가, 나 작품은 이미 알려진 유사한 민요를 다른 장르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이렇게 동일한 작품이 다른 장르로 재창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두 작품 모두, 청산에 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자연친화적 주제와 나비와 친구처럼 함께 간다는 것으로 보아 나비와 화자(인간)를 구분짓지 않고 하나로 보는 물아일체의 사상이 나타난다.

나비야 청산에 가자. 호랑나비야 너도 함께 가자꾸나.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라도 자고 가자.

요점 정리

작자 : 작자 미상

형식 : 시조

성격 : 자연친화적

표현 : 청유형을 많이 사용

제재 : 나비, 청산

주제 :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동화하려는 마음

내용 연구

곳 : 꽃

나뉘 : 나비

저무러든 : 저물거든

6. 한국 문학의 전통성과 특징, 보편성과 특수성 [권근, 상대별곡] 작품 해설

1. 이론 주요 내용

- 한국 문학의 특징 중 미의식 측면이 학교 내신 시험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미의식 측면 : 송고미, 우아미, 골계미, 비장미

송고미 : 추구하는 내용이 드러나면 송고미이다. 예를 들어 앞선 '나비야 청산 가자'와 같은 작품을 말한다.

우아미 :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 우아미이다. 상대별곡이나 한림별곡 같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여 자랑을 하는 내용이나, 자연친화의 작품에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골계미 : 풍자와 해학이 드러난 작품이 골계미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봉산탈춤이나 판소리 작품들(춘향가)이 이에 해당한다.

비장미 : 좌절을 나타내는 작품이 비장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청산별곡에서 현실에 좌절과 비애를 느끼는 부분이 비장미를 드러낸다.

2 출제 작품 해설

조정의 관료들이 정사를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해 자랑하는 내용이다. 처음에는 정사를 보는 내용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해설이 낫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열이 모두 자신들의 치정을 자랑하기 위해 열거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나열하면서 자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연계 유력 작품

한림별곡 (이 작품 역시 상대별곡과 같은 구조로 선비들의 자랑이 드러난 작품이다.)

▶ 해설 1

조선 초기 때의 문신인 권근이 지은 가요. 경기체가(景幾體歌)형식으로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궁중에서 연악(宴樂)으로 쓰이던 송도가(頌禱歌)로서 악장 문학에 속한다. <악장가사>에 수록되어 있다. 제목에 보이는 상대(霜臺)는 사헌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작자가 1399년(정종 1년)에 대사헌을 맡았으니, 그 뒤의 어느 시기에 사헌부에서 하는 일을 칭송한 이 노래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장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1장부터 4장까지는 경기체가의 정격(正格)형식을 정연히 지켰으나 끝의 5장은 형식을 상당히 벗어나 변격(變格)으로 되어 있다.

사헌부는 새 왕조의 기강을 바로잡는 기관이다. 서릿발 같은 기세로 새 왕조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찰하고 엄격한 질서를 수립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으니, 거기서 일하는 관원은 위의(威儀)가 대단하고 자부심도 남다르다는 관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펴고자 이 작품을 지었다고 본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1장은 새 왕조의 도읍터가 천년승지임을 말하고, 이어서 서울의 거리와 사헌부의 엄숙한 기풍 및 관원들의 기상과 자기 과시를 노래했다. 2장은 사헌부 관원들의 등청하는 광경에서 씩씩하고 믿음직한 자태를 묘사하였으며, 3장은 임금의 현명함과 신하의 충직한 모습을 그리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4장은 관원들이 일을 끝내고 술잔치에서 즐기는 장면을 노래하였으며, 5장은 어진 임금과 충성스런 신하들이 어우러진 태평성대에 훌륭한 인재들의 모임이 더욱 좋다는 것을 노래하였다. 이처럼 사헌부에서 하는 일을 하나씩 서술하면서 자부심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5장은 이러한 감격을 총괄하느라고 경기체가의 특유한 형식에서 이탈한 것이다. 격정적인 감정의 표출은 형식일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장르상으로 볼 때는 경기체가에 귀속되며, 형성기의 경기체가로서 장르양식을 굳혀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는 작품으로 주목된다. 또 경기체가 최초의 작품인 한림별곡의 표현양식을 적극 수용한 점에서 두 작품 사이의 맥락을 짚어볼 수 있다. 이 노래는 '군명신직지사(君明臣直之詞)'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성종대의 연향에서 가창되었고(성종실록 권200), 사헌부의 소미연(燒尾宴: 선비의 자제가 처음으로 진사에 합격한 때 행하는 잔치)에서나(증보문헌비고 권107), 사헌부 관원들의 주연에서도 노래 불리었다는 기록(용재총화)이 남아 있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상대별곡(霜臺別曲)

권근

제 1장

華山南(화산남) 漢水北(한수북) 千年勝地(천년승지) 廣通橋(광통교)
雲鍾街(운중가) 건너 드러
落落長松(낙락장송) 亭亭古栢(정정고백) 秋霜烏府(추상오부)
위 萬古清風(만고청풍) 景(경)이 엇더하니잇고.
葉(엽) 英雄豪傑(영웅호걸) 一時人材(일시인재) 英雄豪傑(영웅호걸)
一時人材(일시인재)
위 날조차 몇 분니잇고.

- * 華山南(화산남) : 화산의 남쪽. '화산'은 삼각산(북한산)을 말함
- * 漢水北(한수북) : 한강의 북쪽
- * 勝地(승지) : 경치가 아름다운 곳
- * 廣通橋(광통교) : 다리의 이름
- * 雲鍾街(운중가) : 지금 서울의 종로 부근
- * 落落長松(낙락장송) : 가지가 축축 늘어진 큰 소나무
- * 亭亭古栢(정정고백) : 우뚝 솟은 오래된 잣나무
- * 秋霜烏府(추상오부) : 추상같은 사헌부
- * 一時人材(일시인재) : 한 시대의 뛰어난 인물

▶ 북한산의 남쪽, 한강의 북쪽, 옛날부터 이름난 경치 좋은 땅, 광교, 종로 건너 들어가
휘휘 늘어진 소나무, 우뚝 솟은 잣나무(사직의 원로 대신), 위엄 있는 사헌부
청렴한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영웅 호걸 당대의 인재들 영웅 호걸 당대의 인재들
나를 위시하여 몇 사람입니까?

제 2장

雞既鳴(계기명) 天欲曉(천욕효) 紫陌長堤(자막장제)
大司憲(대사헌) 老執義(노집의) 臺長御使(대장어사)
駕鶴驂鸞(가학참란) 前呵後擁(전가후옹) 辟除左右(벽제좌우)
위 霜臺(상대) 景(경)이 엇더하니잇고
식식흔더 風憲所司(풍헌소사) 식식흔더 風憲所司(풍헌소사)
위 振起頽綱(진기퇴강) 景(경)이 엇더하니잇고

- * 大司憲(대사헌) : 사헌부의 우두머리
- * 執義(집의) : 사헌부의 종3품 벼슬
- * 臺長(대장) : 사헌부의 '장령'과 '지평'의 별칭
- * 駕鶴驂鸞(가학참란) : 아름다운 가마
- * 前呵後擁(전가후옹) : 앞에서는 벽제(辟除)하고 뒤에서는 옹위함

- * 辟除(벽제) : 높은 관원이 행차할 때 구종 별배(驅從別陪)가 잡인의 통행을 막아 길을 치우던 일.
- * 上臺(상대) 景(경) : 사헌부로 등청하는 광경
- * 식식흔더 : 씩씩하다. 엄숙하다
- * 風憲所司(풍헌소사) : 사헌부의 관리
- * 振起頽綱(진기퇴강) : 허물어진 기강을 떨쳐 일으킴

▶ 님은 몇해 울어 새벽이 오자, 하늘은 흰하얗게 날이 새는데, 서울의 길게 쪽쪽 뻗은 길로,
司憲府 으뜸인 大司憲과 높은 執義 그리고 掌令 持平들이,
아름다운 학무늬가마와 난새무늬수레를 타고 上臺하는데, 앞에서는 잡인의 접근을 막으며 고향치고, 뒤에서는 擁衛하며 좌우의 잡인을 물리치며,
아! 사헌부 관원들이 등청하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그 모습도 엄숙하구려, 사헌부의 모든 관원들이여
아! 퇴폐한 기강을 다시 떨쳐 일으키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제 3장

各房拜(각방배) 禮畢後(예필후) 大廳齊坐(대청제좌)
正其道(정기도) 明其義(명기의) 參酌古今(참작고금)
時政得失(시정득실) 民間利害(민간이해) 救弊條條(구폐조조)
위 狀上(장상) 景(경)이 엇더하니잇고
君明臣直(군명신직) 太平盛代(대평성대) 君明臣直(군명신직) 大平盛代(대평성대)
위 從諫如流(종간여류) 景(경)이 엇더하니잇고

- * 正其道(정기도) : 도를 바로 잡음
- * 狀上(장상) : 서장으로 올림
- * 君明臣直(군명신직) : 임금은 현명하고 신하는 곧음
- * 從諫如流(종간여류) : 임금이 신하의 간함을 듣는 것이 물흐르듯 자연스러움

▶ 각방에 소속된 관원들이 대사헌에게 재배하는 예가 끝난 뒤, 대청에 관원들이 齊坐하면,
인간의 상도를 바루고 의를 밝혀, 고금 사례들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 알맞게 헤아리며,
그때그때 정사의 득실과 백성들의 이해에 관한 폐해를 조목조목 구제해 주느니,
아, 문서로 올리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임금은 밝게 다스리고 신하는 직언만 일삼느니, 대평하고 성대한 치세에,
아! 신하들이 간하는 말을 임금께서 좃음이 물흐르듯 하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제 4장

圓議後(원의후) 公事畢(공사필) 房主有司(방주유사)
 脫衣冠(탈의관) 呼先生(호선생) 셋거 안자
 烹龍炮鳳(팽룡포봉) 黃金醴酒(황금예주) 滿鑊臺羹(만루대잔)
 위 勸上(권상경) 그 엇더하니잇고
 즐거온더 先生監察(선생감찰) 즐거온더 先生監察(선생감찰)
 위 醉(취)혼스 景(경) 그 엇더하니잇고

- * 圓議後(원의후) : 회의가 끝난 후
- * 公事畢(공사필) : 공무를 마침
- * 有司(유사) : 어떤 단체의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
- * 烹龍炮鳳(팽룡포봉) : 삶은 용과 구운 봉. 진귀한 음식
- * 黃金醴酒(황금예주) : 잔에 가득 부음
- * 勸上(권상) : 권해 올림
- * 監察(감찰) : 관료들을 규찰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일을 맡은 사헌부의 관리
- * 醉(취)혼스 景(경) : 술에 취한 광경

▶ 圓議席을 편 뒤, 공무를 마친 방주감찰과 유사들이, 의관을 벗고 '선생'이라 부르면서 한자리에 섞여 앉으니, 용을 삶고 봉을 구운 것처럼 진귀한 요리에다, 황금빛 도는 청주와 단술들을 여러 무늬를 아로새긴 쇠붙이술잔에다 가득 부어, 아! 권하여 올리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즐겁구려, 선임이신 감찰이여, 아! 취한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제 5장

楚澤醒吟(초택성음)이아 너는 도흐녀
 鹿門長往(녹문장왕)이아 너는 도흐녀
 明良相遇(명량상우) 河清盛代(하청성대)에
 驄馬會集(총마회집)이아 난 도흐이다

- * 楚澤醒吟(초택성음) : 초나라의 굴원이 '못 사람들이 제 정신을 못 차리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다'고 말한 일을 말함
- * 너는 도흐녀 : 그대는 좋은가
- * 鹿門長往(녹문장왕) : 당나라 시인 맹호연이 절의를 지켜 녹문산에 들어가 은거했던 일
- * 明良相遇(명량상우) : 현명한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서로 만남
- * 河清盛代(하청성대) : 태평성대
- * 驄馬會集(총마회집) : 뛰어난 인재가 모인 곳

▶ 屈原이 초나라 懷王때 충직한 신하로 瀟湘水가로 귀양가서, "온 세상이 다 흐려 있으나, 나 홀로 맑았다네. 못사람들이 다 취하여 있으나, 나 홀로 깨어 있었네"라 읊은, 굴원처럼 충신으로 일

관되게 충절을 지키는 신하가 되는 것이, 너는 좋은가? 아니면 漢末 龐德公이 鹿門山에 약초를 개러 들어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벼슬길을 아예 단념하고 속세를 숨어사는 은사가 되는 것이, 너는 좋은가? 현명한 임금과 충량한 신하들이 새세상에 서로 만난 것은, 황하물이 천년만에 한번 맑아지면 성군이 나타나듯, 태평성대가 도래한 이 때에, 청총마를 타고 오는 훌륭한 벼슬아치들의 모임이야말로, 난 좋습니다.

핵심정리

- * **작자:** 권근 (1352~1409)
- * **연대:** 세종 때
- * **갈래:** 약장(경기체가)
- * **구성:** 전 5장의 분절체
- * **제재:** 사헌부(오부, 상대)
- * **주제:** 사헌부의 위엄 칭송과 조선 건국의 예찬
- * **출전:** 약장가사

한림별곡(翰林別曲)

한림제유

[1장]

元淳文(원순문) 仁老詩(인로시) 公老四六(공로사육)
 李正言(이정언) 陳翰林(진한림) 雙韻走筆(쌍운주필)
 沖基對策(충기대책) 光鈞(광균) 經義(경의) 良經詩賦(양경시부)
 위 試場入景(시장경) 그 어떠하니잇고
 (葉) 琴學士(금학사)의 玉筍文生(옥순문생) 琴學士(금학사)의 玉筍文生(옥순문생)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육변려문
 이규보와 진화의 쌍운주필
 유충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풀이, 김양경의 시와 부
 아, 과시장(科試場)의 모습 그 어떠합니까
 (엽) 금의(琴儀)의 죽순처럼 많은 제자, 금의의 죽순처럼
 많은 제자. 아, 나까지 모두 몇 분입니까

- ◆ 원순(元淳) : 유원순(俞元淳: 1168-1232) 고문에 특히 뛰어난 솜씨를 보임.
- ◆ 인로(仁老) : 이인로(李仁老: 1152-1220) 특히 시에 뛰어난 솜씨를 보임
- ◆ 공로(公老) : 이공로(李公老: ?-1224) 사육변려문에 특히 뛰어난 솜씨를 보임
- ◆ 사육(四六) : 사육변려문. 문장의 한 종류로 한 편 전체가 대구(對句)로 이루어지는 문체.
- ◆ 이정언(李正言) : 정언 벼슬에 있던 이규보(李奎報: 1168-1241). 고려 제일가는 문사 중의 한 사람이다.
- ◆ 진한림(陳翰林) : 한림 벼슬에 있던 진화. 당시 이규보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다.
- ◆ 쌍운(雙韻) : 서로 각기 다른 운을 택하는 일.
- ◆ 주필(走筆) : 붓을 달린다는 뜻으로 운이 주어진다면 곧바로 붓을 휘둘러 글을 써내려 가는 것.
- ◆ 충기 : 유충기(劉沖基) 특히 대책문에 뛰어났다.
- ◆ 대책(對策) : 과거 시험 과목의 하나로써 현실의 문제점을 논파하여 그 해결방법을 적는 형식.
- ◆ 광균(光鈞) : 민광균(閔光鈞). 경전해석에 뛰어난 솜씨를 발휘함
- ◆ 경의(經義) : 경전의 뜻을 여러 주석서(註釋書)를 참조하여 밝히는 일
- ◆ 양경(良鏡) : 김양경(金良鏡) 근체시(近體詩)와 부(賦)에 뛰어났다.
- ◆ 시장(試場)入 景(景) : 과거 시험을 보는 곳의 모습.
- ◆ 금학사(琴學士) : 금의(琴儀) 당시 무인정권하에서 문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사람.
- ◆ 옥순문생 : 옥으로 된 죽순처럼 뛰어난 문하생이란 뜻. 금학사의 문인들을 미화한 말.
- ◆ 날조차 : 나까지. 나를 포함해서. 화자의 자부심, 자긍심이 조금 유치하게 나타나 있음.
- ◆ 몇부니잇고 : 몇 분입니까. 즉 아주 많다

■ 1장 해설

이 부분은 문장가, 시인 등의 시부(詩賦)를 나타낸 것으로 명문장을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과시(科試)의 고시관이었던 금

의(琴儀)에 의해 배출된 많은 제자들의 시(詩), 부(賦)를 찬양함으로써 신진사류들의 당당한 기개를 엿보는 듯하며,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 는 자만에 넘치는 기개라 할 수 있어 당시 상층 문인들의 의식 세계를 짐작하겠으나, 명사의 나열에 그쳐 문학성이 희박하다.

▶주제 : 명문장과 금의의 문하생 찬양

[2장]

唐漢書(당한서) 莊老子(장로자) 韓柳文集(한유문집)
 李杜集(이두집) 蘭臺集(난대집) 白樂天集(백악천집)
 毛詩尚書(모시상서) 周易春秋(주역춘추) 周戴禮記(주대예기)
 위 註(주)조쳐 내 외운(경) 그 어떠하니잇고
 (葉) 太平廣記(태평광기) 四百餘券(사백여권) 太平廣記(태평광기) 四百餘卷(사백여권)
 위 歷覽入景(역람경) 그 어떠하니잇고

당서 한서, 장자 노자, 한유 유종원의 문집
 이백 두보의 시집, 난대집, 백거이의 문집
 시경 서경, 주역 춘추, 대대례 소대례를
 아, 주(註)마져 줄곧 외운 일의 정경, 그 어떠합니까
 (엽) 태평광기 400여 권, 태평광기 400여 권
 아, 두루 읽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 ◆ 당한서(唐漢書) : 중국의 역사책으로서 이십오사(二十五史)의 하나. 한서(漢書)는 전한의 정사로 반고(班固)가 지음
 - ◆ 장노자(壯老子) : 장자와 노자. 노장사상을 대표하는 서적
 - ◆ 한류문집(韓柳文集) : 중국 당나라 때의 문인인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의 문집
 - ◆ 이두집(李杜集) :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인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시집.
 - ◆ 난대집(蘭臺集) : 한(漢) 나라 때의 난대령사들의 시문집
 - ◆ 백악천집(白樂天集) : 중국 당나라 때의 문인인 백거이(白居易)의 문집.
 - ◆ 모시(毛詩) : 시경(詩經)을 말함. 중국 최초의 민간 시집으로 주로 북방의 민요를 채집하여 정리한 책. 공자가 편집했다고 전해지며 유가에서는 경전으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
 - ◆ 상서(尚書) : 서경(書經)을 말함. 중국 초기 황제나 신하들의 말을 모아 놓은 책으로 고풍한 문체와 아울러 고대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책.
 - ◆ 주역(周易) : 시경, 서경과 더불어 삼경(三經)의 하나. 옛날부터 중국에서 전해 온 복서(卜書).
 - ◆ 춘추(春秋) : 공자가 지은 역사책. 춘추전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했으며, 춘추필법(春秋筆法)이란 말이 나오게 된 바로 그 책이다.
 - ◆ 주대례기(周戴禮記) : 대대례와 소대례. 대대례는 경전석문서록설(經典釋文敍錄說)에 의하면 대덕(戴德)이 고레 204편을 취사선택하여 85편으로 정리했다 한다.
 - ◆ 조쳐 : 검하여, 아울러, 포함하여
 - ◆ 내외운 : 내리 외우는
 - ◆ 태평광기(太平廣記) : 송나라 때 태종의 명에 의해 지어진 일종의 설화, 민담집. 당나라 때의 사실들을 여러 영역에 걸쳐 500권으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후세 소설의 발전의 모태가 되었다.
- ▶주제 : 지식 수련과 독서에의 자긍(自矜)

[3장]

안진경체, 비백서, 행서 초서

전주체, 과두체, 우세남체를

양털붓, 쥐털붓 비껴 들어

아, 내려찍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엽) 오생 유생 두 선생의, 오생 유생 두 선생의

아, 붓 놀리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 진경서(眞卿書): 중국 당나라 때의 유명한 서예가였던 안진경(顏眞卿)의 서체. 해서와 초서에 뛰어남

◆ 비백서(飛白書): 팔서체(八書體)의 하나. 팔분(八分)과 비슷한데 필세(筆勢)가 나는 듯 날렵한 것이 그 특징이다.

◆ 행서(行書): 한문 서체의 하나. 해서와 초서의 중간쯤 휘갈겨 쓰는 글자체.

◆ 초서(草書): 한문 서체의 하나. 행서의 자획을 더욱 생략하여 휘갈겨 쓰는 글씨.

◆ 전주서: 전서와 주서. 전서는 고대 한자의 한 서체로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이 있음.

◆ 과두서: 고대문자의 한 가지. 황제시대 때 창힐(蒼詰)이 지었다 함. 글자의 모양이 올챙이 모양과 같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 양수필(羊鬚筆): 양의 수염으로 만든 붓. 좋은 붓의 대명사.

◆ 서수필(鼠鬚筆): 쥐의 수염으로 만든 붓. 좋은 붓의 대명사.

◆ 빗기: 비스듬히.

◆ 덕논: 찍는

◆ 오생유생(吳生劉生): 오선생과 유선생이란 뜻으로 당시의 유명한 명필로 생각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음.

▶주제: 유명 서체와 명필 찬양

[4장]

黃金酒(황금주) 柏子酒(백자주) 松酒醴酒(송주예주)

竹葉酒(죽엽주) 梨花酒(이화주) 五加皮酒(오가피주)

鸚鵡盞(앵무잔) 琥珀盞(호박배)에 마득 브어

위 勸上入景(권상경) 그 멋더하니잇고

(葉) 劉伶陶潛(유령도잠) 兩仙翁(양선옹)의 劉伶陶潛(유령도잠) 兩仙翁(양선옹)의

위 醉醺景(취훈경) 그 멋더하니잇고

황금주, 백자주, 송주 예주

죽엽주, 이화주, 오가피주를

앵무잔, 호박잔에 가득 부어

아, 올리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엽) 유령 도잠 두 선옹의, 유령 도잠 두 선옹의

아, 취한 모습 그 어떠합니까

◆ 황금주(黃金酒): 값비싸고 귀한 술을 미화한 말.

◆ 백자주(柏子酒): 잣으로 만든 술.

◆ 송주(松酒): 소나무 열매로 만든 술.

◆ 예주(醴酒): 예는 원래 봉황이 와서 마신다는 샘물 이름으로

보통 감주(甘酒)를 이룸.

◆ 죽엽주(竹葉酒): 대 잎사귀로 만든 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관광 나가서 사오는 술이 보통 죽엽주다. 그런데 실상 중국에서는 좋은 술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 이화주(梨花酒): 배꽃으로 담근 술

◆ 오가피주(五加皮酒): 오가피나무의 열매로 빚은 술.

◆ 앵무잔(鸚鵡盞): 자개로 만든 앵무 모양의 술잔.

◆ 호박배(琥珀盞): 호박으로 만든 술잔

◆ 유령(劉伶): 서진(西晉) 때의 사람. 죽림칠현의 한 사람으로 주덕송(酒德頌)을 지어 당시 예법에 얽매인 세태를 풍자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술만 취하면 옷을 활랑 벗고 자는 버릇이 있었다 함.

◆ 도잠(陶潛): 동진 때의 시인. 자는 연맹(淵明). 호는 오류선생. 술과 국화를 사랑하였음.

▶주제: 상층 계급의 주흥(酒興)과 풍류

[5장]

紅牧丹(홍목단) 白牧丹(백목단) 丁紅牧丹(정홍목단)

紅芍藥(홍작약) 白芍藥(백작약) 丁紅芍藥(정홍작약)

御柳玉梅(어류옥매) 黃紫薔薇(황자장미) 苳芝冬柏(지지동백)

위 間發入景(간발경) 그 멋더하니잇고

(葉) 合竹桃花(합죽도화) 고운 두분 合竹桃花(합죽도화) 고운 두분

위 相映入景(상영경) 그 멋더하니잇고

분홍모란, 흰모란, 진분홍모란

분홍작약, 흰작약, 진분홍작약

석류 매화, 노란 장미 자색 장미, 지지꽃 동백꽃들이

아, 사이 사이 핀 모습 그 어떠합니까

(엽) 대나무 복사꽃처럼 어울리는 고운 두 분, 대나무 복사꽃처럼 어울리는 고운 두 분

아, 서로 바라보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 홍모란(紅牧丹): 붉은 모란

◆ 백모란(白牧丹): 흰 모란.

◆ 정홍모란(丁紅牧丹): 진홍색 모란.

◆ 홍작약(紅芍藥): 홍색 작약

◆ 백작약(白芍藥): 흰 작약.

◆ 정홍작약(丁紅芍藥): 진홍색 작약.

◆ 어류(御柳): 대궐 속에서 자란 버드나무.

◆ 옥매(玉梅): 옥으로 다듬은 듯 아름다운 매화

◆ 황자장미(黃紫薔薇): 황색과 자색의 장미.

◆ 지지동백(苳芝冬柏): 지(苳)는 어수리라 하는데 미나리과에 속하는 풀. 지(芝)는 영지(靈芝)로 버섯의 한 종류이다. 예로부터 상서로운 풀로 여겨져 왔음.

◆ 합죽도화(合竹桃花): 합죽과 도화.

◆ 두 분: 합죽(合竹)과 도화(桃花)를 의인화(擬人化) 한 것.

▶주제: 온갖 꽃의 아름다움 찬양

[6장]

阿陽琴(아양금) 文卓笛(문탁적) 宗武中琴(종무중금)
 帶御香(대어향) 玉肌香(옥기향) 雙伽椰(쌍가야)고
 金善琵琶(금선비파) 宗智砮琴(종지혜금) 薛原杖鼓(설원장고)
 위 過夜人景(과야경) 그 엇더히니잇고
 (葉) 一枝紅(일지홍)의 빗근 笛吹() 一枝紅(일지홍)의 빗근 笛吹
 (적취)

위 듣고아 줌드러지라

아양의 거문고, 문탁의 피리, 종무의 중금
 대어향, 옥기향이 타는 쌍가얏고
 김선의 비파, 종지의 해금, 설원의 장고로
 아, 밤 새워 노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엽) 일지홍이 비낀 피리 소리, 일지홍이 비낀
 피리 소리. 아, 듣고서야 잠들고파라

- ◆ 아양금(阿陽) : 당시 거문고의 명수인 모양
- ◆ 문탁적(文卓) : 당시 피리의 명수인 모양
- ◆ 종무중금(宗武) : 당시 중금의 명수인 모양
- ◆ 대어향(帶御香) : 기생 이름인 듯. 당시 가야금의 명수인 모양
- ◆ 옥기향(玉肌香) : 기생 이름인 듯. 당시 가야금의 명수인 모양
- ◆ 쌍가야(雙伽椰) : 쌍가야금
- ◆ 금선(金善) : 당시 비파의 명수인 모양
- ◆ 종무혜금(宗智) : 당시 해금의 명수인 모양.
- ◆ 설원장고(薛原杖鼓) : 당시 장고의 명수인 모양
- ◆ 일지홍(一枝紅) : 기생 이름인 듯. 당시 취적(吹笛)의 명수인 모양.
- ◆ 빗근 : 빗긴
- ◆ 듣고아 : 듣고서야.
- ◆ 잠 드러지라 : 잠들고 싶어라.

▶주제 : 흥겨운 주악과 악기 소리의 아름다움

[7장]

蓬萊山(봉래산) 方丈山(방장산) 瀛洲三山(영주삼산)
 比三山(비삼산) 紅樓閣(홍루각) 婬婦仙子(작작선자)
 綠髮額子(녹발액자) 錦繡帳裏(금수장리) 珠簾半捲(주염반권)
 위 登望五湖人景(등망오호경) 그 엇더히니잇고
 (葉) 綠楊綠竹(녹양록죽) 栽亭畔(재정반)애 綠楊綠竹(녹양록죽)
 栽亭畔(재정반)애

위 전黃鸞(황앵) 반갑두세라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의 삼신산
 이 삼신산 붉은 누각에 신선아이 데리고
 풍류객이 비단 장막 속에서 주렴을 반만 걷고
 아, 산에 올라 오호를 바라보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엽) 푸른 버들 푸른 대 자라는 정자 둔덕에, 푸른 버들
 푸른 대 자라는 정자 둔덕에

아, 지저귀는 꾀꼬리 반갑기도 하여라

▶주제 : 선경의 미녀와 꾀꼬리의 자태

- ◆ 봉래산(蓬萊山) : 옛날 중국 사람들이 상상하던, 동해 멀리 있

다는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 중의 하나. 전설에 의하면 삼신산은
 구름에 쌓여 있으며, 물건이나 금수가 모두 희고 관궐(官闕)은 황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동경하는 곳이라 한다.

- ◆ 방장산(方丈山) : 삼신산의 하나.
- ◆ 영주삼산(瀛洲三山) : 영주산을 말함. 삼신산의 하나.
- ◆ 차삼산(此三山) :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
- ◆ 홍루각(紅樓閣) : 붉게 칠한 누각. 부잣집 여자 또는 미인이 거
 처하는 집,
- ◆ 작작선자 : 아름다운 선녀
- ◆ 녹발액자(綠髮額子) : 머리카락이 검푸르게 이마에 드리워진 얼
 굴. 미인을 형용한 말.
- ◆ 금수장리(錦繡帳裏) : 비단으로 꾸민 장막 안.
- ◆ 주렴반권(珠簾半捲) : 구슬로 만든 발이 반쯤 걸힌 있는 모양.
- ◆ 등망오호(登望吾湖) 人景(景) : 높은 곳에 올라 오호(五湖)를 바
 라보는 광경.
- ◆ 녹양록죽 재정반(綠楊綠竹 栽亭畔) : 푸른 버들과 대나무를 정
 자 주위에 심음.
- ◆ 전황앵(前黃鸞) : 꾀꼬리가 여러개 우는 것.
- ◆ 반갑두세라 : 반가워라.

[8장]

唐唐唐(당당당) 唐楸子(당추자) 梔莢(조협)남긔
 紅(홍)실로 紅(홍)글위 툇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小年(정소년)하
 위 내가논딕 늑갈세라
 (葉)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쌍수)스길헤 削玉纖纖(삭옥섬섬) 雙
 手(쌍수)스길헤

위 携手同遊人景(휴수동유경) 그 엇더히니잇고

- 당당당 당추자(호도나무), 조협(쥐엄)나무에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매웁니다
 당기거라 밀거라, 정소년아!
 아, 내가 가는 그곳에 남이 갈까 두려워
 (엽) 옥을 깎은 듯 부드러운 두 손길에, 옥을 깎은 듯
 부드러운 두 손길에 아, 손 잡고 노니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 ◆ 당당당 : 아무런 뜻이 없고 단지 음수울과 음악적 효과를 맞추
 기 위한 배려. 당추자의 '당'을 반복한 것임.
 - ◆ 조협(莢)남긔 : 쥐엄나무에.
 - ◆ 紅(홍)실로 : 붉은 실로.
 - ◆ 紅(홍)글위 : 붉은 그네[楸韃(추천)]를
 - ◆ 툇요이다 : 맵니다.
 - ◆ 혀고시라 : 당기시라.
 - ◆ 밀오시라 : 미시라.
 - ◆ 鄭小年(정소년)하 : 정 소년아. '하'는 호격 조사.
 - ◆ 가는 딕 : 가는 곳에
 - ◆ 갈세라 : 가지 않을까 두렵다, '~ㄹ 세라'는 의구형 어미로서
 '~할까 두렵다'의 뜻
 - ◆ 삭옥섬섬 : 옥을 깎아 만든 듯이 곱고 보드라운 (여자의 손).
 - ◆ 雙手(쌍수)스길헤 : 두 손을 마주 잡고 가는 길에.
 - ◆ 携手同遊(휴수동유) :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노는 것
- ▶주제 : 그네뛰기의 즐거운 광경과 풍류 생활의 찬양

■ 해설

8장은 다른 장과는 달리 우리말 위주로 표현되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네(鞦韆)와 같은 민속적인 소재를 다루는 데는 우리말이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향락과 흥취가 극치에 이른 흐드러진 광경, 당시 상층 사회의 문인들의 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풍류의 극치를 국어로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으며, ‘당당당(唐唐唐)’과 같은 운율미는 상당히 세련되었다.

▶주제 : 그네뛰기의 즐거운 광경과 풍류 생활의 찬양

핵심정리

- * **작자:** 한림 제유(諸儒·여러 선비)
- * **연대:** 고려 고종(13세기 초)
- * **성격:** 귀족, 과시적, 풍류적, 향락적
- * **갈래:** 경기체가
- * **구성:** 전 8장의 분절체
- * **의의:** 우리 나라 최초의 경기체가
- * **출전:** [악장가사], [고려사 악지]
- * **특징:** 우리나라 문자가 없던 시기에 한자를 교묘하게 연결하여 기형적이거나 우리말 운율에 맞게 노래 불렀던 형식. 무신 정권 하의 신흥 사대부들의 향락적이고 활기찬 풍류 생활을 드러낸 노래.
- * **주제:** 향락적 생활과 풍류, 신진 사류(新進士流)들의 자긍심과 의욕적 기개 찬탄

한림별곡에 대한 일반적 평가

이 노래는 우리나라 독특한 시형인 경기체가의 첫 작품으로 꼽힌다.

노래 내용에는 교만한 신흥 관료들의 방탕한 일면이 있지만 그 당시 문인 관료들의 삶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개 고종 3년(1216)으로 본다. 최충헌의 막부에서 일한 문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시형이 모색된 것이다.

한림이란 조정에서 벼슬하면서 문학을 하던 선비를 지칭한 것이다....이 노래는 한림들의 전형적인 놀이 모습을 자만에 찬 내용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백성들은 어려운 외적의 침입을 받아 험벗고 있는데 최씨 막부의 문인들의 교만하고 방탕스런 놀이 행각은 당시 시대의 지배관료층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최철, 국문학개론,p.60

<고려사 악지>에는 고려 고종 때 여러 한림들이 지었다고 되어 있다.

‘한림별곡’이란 이름도 여기에서 나온다. 이 노래는 바로 이 시의 첫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인물들이 서로 지어 부르면서 흥취를 돋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려사 악지>의 속악조와 <악장가사>에 실린 노랫말에서는 이 노래 가운데 우리말 부분이 그대로 기록된 데 비해 <고려사 악지>에 후렴 부분이 전자에는 ‘경(景) 그 엇더하니잇고’로 후자에는 ‘경기하여(景幾何如)’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시대적 배경

고려 고종 때는 어느 시기보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고통이 심했다. 안으로는 무신(武臣)의 집권과 밖으로는 몽고의 침입 등으로 국토가 유린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귀족 계급의 문화는 한문의 도입이 융성해지자, 난숙기에 달해 당시의 문신들은 집권 계급인 무신들의 문객으로서 그들의 호화로운 연락(宴樂)에 참여하여 현실에 영합하는 퇴폐적 향락에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 속에서 시와 술을 즐기며 현실 도피적인 풍류를 일삼는 나약한 문사들이 되었다.

해설 1

이 노래는 고려 고종 때(13세기 초) 한림원의 여러 유생들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최초의 경기체가로 모두 8장으로 되어 있다. 매 장은 전대절(前大節)과 후소절(後小節)로 이루어진 6구체로, 각 장에 당대의 시와 부, 중국 서적, 명필(名筆), 명주(名酒), 화훼(花卉), 음악(音樂), 누각(樓閣), 추천(鞦韆·그네) 등 1경(景)씩을 배치하여 당시 사대부들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생활과 풍습을 노래하고 있다. 거의가 한자어의 나열로 1·2·3장은 문사들이 수양하는 학문과 연관이 있지만 나머지 5장은 극단적 향락의 생활상을 과시한 데 지나지 않아 문학성이 보잘것없다. 다만 제8장은 국어 어휘를 잘 구사하여 문학성이 높다.

해설 2

전 8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시부(詩賦), 서적(書籍), 명필(名筆), 명주(名酒), 화훼(花卉), 음악(音樂), 누각(樓閣), 추천(鞦韆·그네) 등을 소재로, 당시 선비들의 생활을 노래했다. 한문 구절이 많고 시적인 기법이 단순하지만, 시적 대상을 나열하거나 제시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느낌이나 흥취를 영탄적인 시구 ‘경 그 엇더하니잇고’(그래서 ‘경기하여가’라고 부름)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意)만을 중시하던 이전 시기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물(物)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 한국 문학의 전개 양상 [설총, 화왕계] [작자 미상, 어인 별라완대] 작품 해설

1. 이론 주요 내용

시대	기본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
고대 ~ 통일 신라		고대 가요 향가	설화신화, 전설, 민담 등)		
고려		고려 속요			
조선	전기	한시 가사 (일부)	고전 초설	가전	경기체가 악절 가사 (일부) 가전 (일부)
	후기	시조	만소리계 소설		국문 서간 기행문 한문 수필
개화기		신체시	신소설	신마극	
근현대	근현대시		근현대 소설	근현대극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근현대 수필

- 위 표는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표이다.

- 다음 표는 내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	내용
서정	•서정시는 시대적으로 사상, 담당층에 따라 다양한 갈래로 변화해 왔음. •가 (歌), 무 (舞), 악 (樂)의 종합 형태에서 시가와 시로 점차 분화하였음.
서사	•국가 영웅에 대한 신적 이야기에서 점차 개인적, 인간적 이야기로 변화해 왔음. • 신화, 전설, 민담이 고려 후기 가전, 조선 전기 전기(傳奇) 소설, 조선 후기 영웅 소설, 역사 군담 소설, 가정 소설, 우화 소설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흐름이 신소설과 현대 소설에 계승되었음.
극	• 고대에 제의와 놀이로서 존재하던 극이 중세에 외교적 차원에서 국가가 관할하여 발전하 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민간의 상업적 측면에서 발전해 왔음. •근대 일본 및 서구 연극의 영향으로 전통극 대신 신파극, 현대극으로 변화해 왔음.
교술	•한문 의론류 * 에서부터 국문 일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분화발전함. * 의론류 : 교훈적, 이념적 전달이 주가 되는 기록 양식의 한 종류.

2. 문학 작품의 주요 내용

- 1) 화왕계 : 어려운 작품이다. 가전체 문학(대상을 의인화하여 교훈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산문문학의 한 갈래)의 특징을 염두하여 읽는다. 또한 옛날 어휘와 문장 표현이 주로 쓰였으므로 세부적인 내용보다 **중심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도록 한다.
- 2) 어인 별라완대 : **낙락장송**(가지가 크게 늘어진 소나무)의 상징적 의미를 명심하도록 한다. 낙락장송은 '지조, 절개'를 나타낸다. 이러한 낙락장송을 별레가 좀먹어 쓰러진다는 것은 나라에 지조 있는 신하들이 간신배들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인 '안'의 의미를 숙지하도록 한다. '안'은 '마음'이라는 뜻이다.

내용 연구

화왕(花王 : 꽃 중의 왕이라 하여 모란을 이르는 말)께서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싸 보호하였는데, 삼춘가절(三春佳節 : 봄 석달 중의 가장 좋은 때 즉 음력 3월)을 맞아 예쁜 꽃을 피우니, 온갖 꽃보다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꽃들이 다투어 화왕(花王)을 보러 왔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의 맑은 정기를 타고 난 탐스러운 꽃들이 다투어 모여 왔다. - 화왕의 빼어난 미모[도입]

문득 한佳人(佳人 : 아름다운 여자)이 앞으로 나왔다. 붉은 얼굴에 옥 같은 이와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입고 아장거리는 무희(舞姬 : 춤추는 여자)처럼 암전하게 화왕에게 아뢰었다. "이 몸은 백설의 모래 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는 목욕하여 몸의 먼지를 씻었고,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悠悠自適 : 속세를 떠나 아무것도 속박되지 않고 자기하고 싶은 대로 조용하고 편안히 생활하는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몸은 ~ 지냈습니다." : 그 자라는 환경으로 보아 장미과에 속하는 해당화로 보이며, 세파에 물들지 않고 곱게 자랐음을 알 수 있다. 뒤의 '백두옹'과 대조되는 속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이름은 장미[세파에 물들지 않고 곱게 자란 인물로 '백두옹'과 대조되는 속성을 지님]라 합니다. 임금님의 높으신 덕을 듣고, 꽃다운 침소[침실]에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몸을 받아 주실는지요?" - 장미가 미모로서 화왕의 환심을 사려함

이 때 벼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는 흰 백발을 한 장부 하나가 둔중한 걸음으로[벼옷을 입고,~둔중한 걸음으로 : 해당화의 화려함에 비교되는 형상화로, 검소한 옷차림으로 가죽띠를 둘렀다는 것은 서민이 아님을 뜻하고, 세상사를 많이 겪은 이력이 드러남. 지팡이를 든 백발이라는 것은, 왕의 스승이 될 만큼 연륜을 쌓은 원숙한 나이를, 짐착한 걸음은 무게 있는 인품을 표현한 것이다. 임금에게 충간할 만한 인품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임. 이 작품은 임금의 도리를 은근히 풍자하였을 뿐, 교훈 등을 정면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나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이 몸은 서울 밖 한길 옆에 사는 백두옹(白頭翁 : 할미꽃, 머리가 센 노인)입니다. 아래로는 창망한(넓고 멀어서 아득함)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 경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옵건대,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膏梁 : 고량진미(膏梁珍味)의 준말로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임금의 진짓상)을 받들어 임금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고리짝(옷을 담은 상자)의 하나로 고리나 대오리로 엮어서 만든 큰 상자)에 저장해 둔 약약(매우 효험이 있는 약)으로 임금님의 원기를 돕고, 금석의 극약(위험을 주는 약)으로써 임금님의 몸에 있는 독(毒)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까지 '비록 사마(絲摩 : 명주실과 삼실로 '최선의 것'을 의미함)가 있어도 군자된 자는 관과(관과 괴 둘 다 풀이름, 관은 도롱이와 샷갓을, 괴는 돗자리를 짜는 원료로 일종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나타낸 말이다. '차선의 것'으로 대비책을 말함)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有備無患).[군자 된 자는 비록 ~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 : 좌전의 '수유사마 무기관과(雖有絲摩無棄管) '에서 인용한 말. 최선의 것이 있어도 차선의 것을 버리지 않음을 비유한 말로 유사시

에 대비함을 의미한다. 사마는 명주실과 삼실로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고, 관괴는 띠풀과 왕골로서 거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 해서 하찮게 여기고 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이러한 뜻[귀에 좋은 말만하는 신하보다는 임금께 직언을 하는 신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백두옹이 화왕의 마음가짐을 경계함] - 장미와 백두옹의 청원[전개]

한 신하가 화왕께 아뢰기를, "두 사람[장미와 백두옹]이 왔는데, 임금님께서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 [양자택일(兩者擇 : 둘 중에서 하나를 고름. 비슷한 말로 이자선일, 이자택일.]

화왕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장부[대장부 = 백두옹]의 말도 도리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佳人(佳人)[장미]을 얻기 어려우니 이를 어찌할꼬?" - 화왕의 갈등
그러자 장부가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제가 온 것은 임금님의 총명이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된 자로서 감사하고 아첨하는 자[교언영색(巧言令色) :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맹자(孟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 : 한 나라 안릉 사람, 어진 인재였으나 벼슬이 낭관에 그쳤음)은 낭관(廊官 : 조선 시대에, 정오품 통덕랑 이하의 당하관을 통틀어 이르던 말. 여기서는 하급직 벼슬을 의미함)으로 파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하오니 저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임금의 어리석음에 정문일침(頂門一鍼 :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는 뜻으로, 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르는 말로 유사어로 정상일침이 있다.)을 가하고 있다.]

화왕은 마침내 다음의 말을 되풀이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화왕(花王)이 외관에 눈이 어두워 본질을 보지 못한 잘못, 즉 옳은 말을 하는 충신을 몰라 본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말이다.]" 고 하였다.

이에 왕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르기까지, "그대의 우언(寓言 : 우화로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이솝 이야기'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으니 글로 써서 왕자(王者)의 계감(戒鑑 : 경계(鏡戒)와 같은 말로 분명히 타일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을 삼게 하기 바라오."

하고, 총을 발탁(拔擢 : 여러 사람 가운데서 쓸 사람을 뽑음)하여 높은 관직에 임명하였다. - 화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결말]

- 화왕 : 꽃 중의 왕이라 하여 모란을 이르는 말
- 삼춘가절 : 봄 석달 중의 가장 좋은 때 즉 음력 3월
- 유유자적(悠悠自適) : 속세를 떠나 아무것도 속박되지 않고 자기하고 싶은 대로 조용하고 편안히 생활하는 일
- 佳人 : 아름다운 여자
- 무희 : 춤추는 여자
- 백두옹 : 할미꽃, 머리가 센 노인
- "이 몸은 ~ 지냈습니다." : 그 자라는 환경으로 보아 장미과에 속하는 해당화로 보이며, 세파에 물들지 않고 곱게 자랐음을 알 수 있다. 뒤의 '백두옹'과 대조되는 속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 고량 : 고량진미(膏梁珍味)의 준말로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
- 수라상 : 임금의 진짓상

- 배웃을 입고, ~둔중한 걸음으로 : 해당화의 화려함에 비교되는 형상화로, 검소한 옷차림을 가죽띠를 둘렀다는 것은 서민이 아님을 뜻한다. 지팡이를 든 백발이라는 것은, 왕의 스승이 될 만큼 연륜을 쌓은 원숙한 나이를, 침착한 걸음은 무게 있는 인품을 표현한 것이다. 임금에게 충간할 만한 인품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임. 이 작품은 임금의 도리를 은근히 풍자하였을 뿐, 교훈 등을 정면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 고리짝 : 옷을 담는 상자의 하나로 고리나 대오리로 엮어서 만든 큰 상자
- 양약 : 매우 효험이 있는 약
- 극약 : 위험을 주는 약
- 사마 : 명주실과 삼실
- 관괴 : 관과 괴 둘 다 풀이름, 관은 도롱이와 샷갓을, 괴는 돛 자리를 짜는 원료로 일종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나타낸 말이다.
- 군자 된 자는 비록 ~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 : 좌전의 '유유사마 무기관괴(雖有絲摩無棄管)'에서 인용한 말. 최선의 것이 있어도 차선의 것을 버리지 않음을 비유한 말로 유사시에 대비함을 의미한다. 사마는 명주실과 삼실로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고, 관괴는 띠풀과 왕골로서 거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 해서 하찮게 여기고 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다.
- 풍당 : 한나라 안릉 사람. 어진 인재였으나 벼슬이 낭관에 그쳤음.
-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 화왕(花王)이 외관에 눈이 어두워 본질을 보지 못한 잘못, 즉 옳은 말을 하는 충신을 몰라 본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말이다.

▶ 요점 정리

- 작가 : 설총(薛聰)
- 연대 : 신라 신문왕(神文王 : 681~693)때
- 구성 : '도입-전개-절정-결말'의 소설적 구성
- 성격 : 우언적(寓言的) :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이슬 이야기'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풍자적(諷刺的), 교훈적
- 제재 : 꽃(모란꽃)
- 내용 : 꽃을 의인화하여 임금에게 충고한 풍자적 이야기로 자연물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 주제 : 임금에 대한 경계(또는 간언)
- 구조
 - ① 도입 : 화왕의 내력, 탐스러운 영기와 오묘한 향기를 풍겨 온갖 꽃들이 따름
 - ② 전개 : 장미와 백두옹의 간청, 충신 백두옹과 간신 장미의 간청-두 신하의 대조
 - ③ 위기 : 화왕의 갈등(화왕의 망설임)
 - ④ 절정-결말 : 화왕의 깨우침, 임금에 대한 우의(寓意)적 경계
- 의의 :
 - ① 설총의 유일한 유문(遺文)으로 우리 나라 최초의 창작 설화이다.
 - ② 이 설화의 가전적(假傳的)요소가 고려 시대 가전체에 영향을 주었고, 조선 중기 화사(花史)와 같은 작품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 ③ 구토설화(龜土設話)와 함께 의인체 설화의 효시가 되었고, 목적

문학이다.

- 줄거리 : 꽃나라를 다스리는 화왕 모란은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꽃 중에서 아첨하는 장미를 사랑하였다가 뒤에 할미꽃 백두옹(白頭翁)의 충직한 모습에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간곡한 충언에 감동하여 정직한 도리(道理)를 숭상하게 된다는 내용
- 출전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 이해와 감상

우리 나라 최초의 창작 설화로, '동문선'에는 '풍왕서'라는 제목으로 실려 전해 온다. 신라 신문왕 때의 설총(薛聰)이 한문으로 지은 우언적(寓言的)인 단편 산문이다. 어느 날 무슨 신기한 이야기를 하라는 신문왕의 명을 받고 들려 준 이야기라고 하는데, 꽃을 의인화하여 임금을 충고한 풍자적인 내용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소설적인 기록이며, 후대의 가전체 소설은 이 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은 꽃을 의인화하여 쓴 서사문학 작품으로는 최초의 것이다. 이처럼 사물을 의인화 한 작품을 만드는 전통은 고려 시대의 가전문학으로 이어지고, 조선 시대에 이르면 심성을 의인화한 소설로 동물을 의인화한 소설 등으로 발전적인 변모를 하게 된다. 조선 시대에 나온 꽃을 의인화한 대표적인 소설로는 '화사(花史)'를 들 수 있다.

하여간 이 작품은 식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의 처신을 말함으로써 문학적 표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후대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의인 설화로써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백두옹으로 자처하는 인물이 화왕 앞에 나타나서, 그 동안의 생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충간한 말은 깊이 새겨야 할 뜻을 담고 있다. 서울 밖 한길가에 산다고 하면서 자연의 경치를 말한 데서는 선비의 고결한 품성에 관한 은근한 자부심이 나타나있다. 즉, 화려한 서울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바른 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임금에게 하는 말은 부귀만 누리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원기를 돋우고 독을 제거하는 약이 또한 필요한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약이야말로 백두옹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바른 도리이다.

설총은 이런 구실을 하는 백두옹으로 자처하고자 했고, 신문왕은 또 그 점을 인정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 에피소드로, 왕에게 신하를 가려 뽑는 슬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진 임금 밑에는 어진 신하가 모이고 폭군(暴君) 밑에는 간신들이 모인다는 역사적 교훈을 꽃에 비겨서 상기시키는 이 작품은 반드시 왕이나 지체 높은 사람에게만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평범한 속담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교훈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사제 관계 등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갈등, 가치 판단, 도덕적 책임에도 관련된다. 특히 작품의 전개에서 왕의 심리에 갈등을 도입하여 위기를 설정하는 장면은 뛰어나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심성을 의인화한 소설, 동물을 의인화한 소설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꽃을 의인화한 '화사', 심성을 의인화한 한문 소설 '수성지', 동물을 의인화한 한글 소설 '장끼전' 등이 그 예이다.

어인 벌리완대

無名氏 (작가미상)

어인 벌리완대 落落長松 다 먹 난 고
부리 긴 저고리 난 어니곳에 가 있 난 고
空山에 落木聲 들릴 제 내안 돌 디 업 세 라

현대어

어 떠 한 벌레 길 래 낙 낙 장 송 다 먹 는 고
간신배 지조있는 선비, 충신
부 리 긴 딱 따 구 리 어 느 곳 에 가 있 는 가
간신배를 물리칠 수 있는 이
공 산 에 나 못 닢 질 때 내 맘 돌 곳 없 어 라
간신배에 의해 스러지는 충신들

성격 : 우국가

해 설

어떻게 생긴 벌레이기에 축축 늘어진 긴 소나무까지 다 먹고 ?
입부리가 긴 딱따구리는 어디에 가 있는가 ?
적막한 산 속에서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내 속마음 돌 곳이 없구나

감 상

이 시조에서 '벌리'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선비들을 해치는 간신배 들이나 황금 만능주의 의 풍조를, 낙낙장송은 절의가 굳은 사람, 곧 선비들을, '딱따구리'는 부리가 날카로워서 썩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기생하는 벌레를 잡아먹는 새로 부정과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공산낙목성은 정도가 서지 않은 세상에서 절의 굳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는 古詩歌에서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별로 새로운 것은 없다. 사회의 정의와 도덕이 완전히 실추된 세상,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는 사회, 이런 상황에 도전하고 극복할 만한 사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작자의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듯 하다. "술은 빛같이 희지만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듯, 황금은 선비의 마음을 검게 한다" 라는 말이 있다.